

2020년 세 번째 호 (통권 32호)

# 별마을 별마을

(星村, 별성마을촌)

“이 길이 맞는걸까?”

너는 물었다.

나는 말했다.

“가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거겠지”

정현주 – 거기 우리가 있었다



[www.sungchon.or.kr](http://www.sungchon.or.kr)

\* 소식지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개인의 동의하에 수록하였습니다.

# 별마을 이야기

(星村, 별성 마을 촌)

## Contents

2020 Vol.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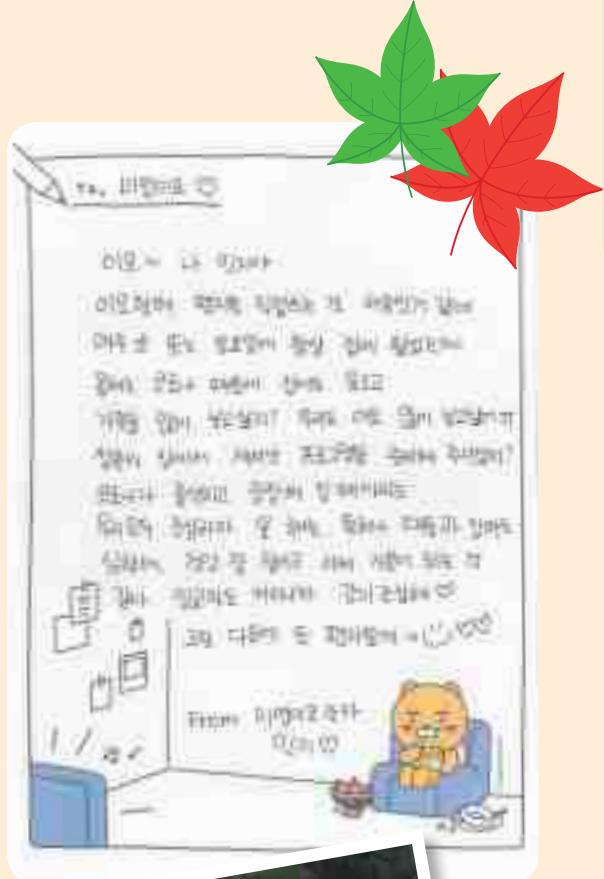
- 03 에필로그 (미영이모에게..)
- 04 별마을 이야기#1 (언택트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
- 06 별마을 이야기#2 (건조기로 빨래~끝!!)
- 07 별마을 이야기#3 (손끝에서 향기가 나오)
- 08 별마을 이야기#4 (내가 준비한 캠프)
- 10 동암누리 (마을 인문학 교실)
- 12 별마을 메모리즈
- 13 행복한 동행
- 14 좋은이웃들
- 15 감사합니다





우편물함 타이핑 주소들 속에 눈에 띠는 손편지가 들어있습니다.  
미영님의 조카로부터 편지가 왔어요.  
요즘같이 각박한 일상에 쉼표처럼 느껴지는 순간이네요.

미영님은 주말이면 어김없이 원가정에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  
다 월요일 아침이면 귀원하셨었는데요. 원가정의 면회조차 어려  
운 시기라 몇 달째 가족과 함께 하질 못하셨어요.  
아마도 많이 그리웠을 가족.. 민지조카의 편지로 가족의 따스함이  
전해졌기를 바래봅니다.



# 언택트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

코로나19가 극성인 2월부터 우리는 나가는 것에 대한 자유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같이 산다는 이유는 외출에 대한 제한을 받았고, 누군가 이곳에 들어오는 것에도 제한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의 일상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늘 이 지역의 가게에 가서 자신의 원하는 것을 사먹었고, 보고싶은 영화를 자유롭게 볼 수 있었고, 내가 원하는 노래방을 자주, 기기도 했었고, 코인노래방 가는 것도 알게 되어 갈 수 있었는데 여름에는 여름휴가도 계획하고 각자 가고 싶은 여행지를 선택하여 가기고 했었는데, 다양한 나만의 취미들을 할 수도 있었는데 모두다 멈춰 버렸습니다.

그래도 이대로 멈출 순 없지~~

직원들과 성촌의 이용가족들이 머리를 싸매고 아이디어를 모읍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즐겁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 안에 영화관을 만들어 보죠 뭐 영화관 처럼은 아니지만 영화티켓도 구매해보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영화를 고르기도 하고, 큰 화면을 통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해볼까요..



즐거운 게임들이 많이 있는데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게임들을 모아 동아리처럼 해보는 건 어떨까요. 본인들이 원하는 시간, 본인들이 즐길수 있는 놀이들을 모아모아 서로 가려쳐 주기도 하고 함께 참여해보기도 해보는 다양한 게임들을 모아보죠...





이용자들의 단연 1등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의 답은 노래요~~~~

그래 노래만큼 신나는 건 없지...

노래방기계를 활용하고 마이크고 구입하고 조명은 없지만 멋진 노래방을 만들어 놀아보자구요..



그리고 각자가 하고 싶었던 일들, 함께하고 싶었던 일들을 모아모아 작은 동아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각 흄별에서 식사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지다보니 밥해먹는 것, 요리하는 것도 다양해해지고 하고자 하는 의욕도 많아졌습니다. 다양한 요리제목들도 나오고 요리책을 보며 자신들이 먹고 싶은 것들을 함께 재료를 구입하여 만들어 먹어보기도 한답니다.



### 여행도 패스

다음에 기억해 두었다가 여행도, 캠프도 가야겠어요. 그래도 캠프를 하지 않으면 무엇인가 빠진듯한 이 기분...

캠핑카, 텐트 등을 빌려 캠프 분위기를 내며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나 보기 위한 노력도 해봅니다.

언택트 시대....

우리는 소박하지만, 이 안에서 코로나블루를 만들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바쁜 하루하루가 오늘을 이겨내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성촌의집을 늘 응원하는 후원자, 자원봉사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들 평안하시죠...

우리 얼굴 대면하고 만나는 날까지 건강 잘챙기면서 좋은날을 기대해 봐요~~

# 건조기로 빨래~~ 끝!!

울여름 유난히도 비가 많이 내렸어요

에어컨은 제습 기능으로 바쁘게 돌아가지만 집안의 농눅함은 어찌할 수가 없네요

가장 큰 문제는 장마철이면 늘 옷에서 꿈꿀한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햇볕에 바싹 말리면 소독도 되고 좋으련만~~

그러나 생활관에서는 아무리 긴긴 장마가 이어져도 빨래 걱정이 없다죠?

바로 요 신통방통한 빨래 건조기가 있으니깐요~

여자 생활동에서는 건조기에 말려져 보송보송한 세탁물들을 개기 바릅니다.

영희님은 말합니다.

“참 세상이 많이 좋아졌시유. 워찌 이리도 옷이 빨리 마른데유...”

한달 내내 장마가 이어져도 온종일 돌아가는 건조기 덕분에 포근하게 옷을 갈아 입을 수

있으니 걱정이 없다고 하네요~



# 손끝에서 꽃향기나요

점심을 먹고

이용자 분들이 한적함을 느끼고,

낮잠의 기운이 솔솔 몰려올 때였어요.

**순임님 : 아! 이거 해야 하는데..**

**미영님 : 어, 이거, 이거, 복지사님 이거 할 수 있어요?**

손톱에 매니큐어 바르는 동작을 하며

순임님이 냉장고에서 일회용 봉지에 담아둔 이파리를 보여줍니다.

백반없이 꽃으로만 물들이려면,

초록잎보다 꽃잎이 더 필요하겠는데요..

**순임님 : 어~, 저기 있어. 많아. 갔다 올게. 미영아, 같이 가자.**

꽃잎과 이파리의 출처는

성촌의집 앞마당 화단에 피어있는 봉송아 꽃이었습니다.

**순임님 : 이걸로 짹어야 해.**

붉은 꽃잎과 초록 이파리들은

순임님이 가지고 온 작은 돌에 짹어져

이용자 분들의 손끝 위에 내려앉게 되었습니다.

시작은 두 분이었으나,

봉송아 물들이는 것을 보고 다른 이용자 분들도

‘나도 할까?’ ‘저도 해볼래요’라며 늘어나

여섯 분의 손끝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미영님 : 복지사님, 손에서 꽃 냄새가 나오.**

**미정님 : 아이, 예쁘다.**

**미경님 : 봉송아가 잘 물들었어요.**

**복지사 : 기념으로 다 같이 사진 찰칵 짹어요.**



애플로그

휴대폰으로 서로의 손을 짹어 사진으로 남겼어요.

**순임님 : (찍을게) 가만히 있어봐, 짹!**



## 성촌의집에 캠핑장이 생겼어요~!!

여행은 물론 외출조차 어려운 나날이 계속되면서 바람 쐬고 싶은 마음에 지침이 더해가는 요즘입니다.

작년이라면 별마을가족들은 그룹여행으로 어디를 갈지 설레며 여름을 맞이했었죠. 올해 여행이 취소되고 나가지 못하는 답답함을 캠핑으로 풀어내려 합니다.

성촌의집의 녹색공간에 캠핑장이 생겼어요.



8월의 태풍이 무사히 지나가길 기도하고 기다리며  
9월 초 일주일동안 별마을 가족들은 각자 팀으로 1박2일 캠핑을 보냈습니다.  
별마을 가족들의 '내가 준비한 캠프', 어떻게 보냈는지 살짝쿵 공개합니다★"



"내가 준비한 캠프" 신나는 이야기 좀 들어보실래요?

오늘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1박 2일 내가 준비한 캠프가 열리는 날.

두둥두동 설레는 마음으로 캠핑장이 있는 녹색공간으로 GOGO~!

성촌 캠핑장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텐트와 캠핑카가 신기하고 또 신기하여 만져도 보고 누워도 보았죠.

캠핑의 재미는 역시 먹거리!

"오늘은 내가 손맛 좀 발휘하겠어유"

맛있게 소시지도 굽고, 여러가지 과일들도 끼워 꼬치도 만들었죠.

비록 밖으로 여행은 가지 못하였지만 답답한 마음이 조금은 해소되었어요

여름의 끝자락에서 가을을 맞이하며,

우리들의 추억의 한 페이지가 채워지는 신나는 캠핑이었습니다^^



## 내년에는 멋진 "캠핑카"로 달려요!

여행이 어려운 상황이 길어지는 일상에 뜻밖의 선물이 주어졌어요.  
바로 녹색공간에서의 "내가 준비한 캠프"였죠.

내가 캠핑장에서 이용해보고 싶은 캠핑카, 텐트 등을 선택하고  
캠핑하며 즐길 먹거리를 준비하고,

캠핑장에서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 같은 팀 식구들끼리 이야기 나눴어요.  
먹거리로 삼겹살, 배달음식, 과자도 과일도 많이, 음료도 가득 준비하고  
놀거리로 화투치기, 사진찍기, 노래하기, 음악에 맞춰 춤추기를 즐겼죠.  
무엇보다 神났던 것은 '힐링'! 캠핑카의 자유로움!  
캠핑카에 누워도 보고, 운전대도 잡아 보고, 낮잠도 자고...  
우리에게는 신바람이 나는 멋진 캠프였습니다.



## 예상하지 못한 "비" 소식! 그러나 우리는 행복하게 즐긴다.

캠프 날짜를 잡을 때만 해도 예보에 없던 비소식이 시작에 반겼습니다.  
다행히 캠프 중에 비가 멈춰 비오는 날의 캠핑하는 낭만을 잠시 즐겼죠.

캠프의 놀거리로 우리 팀에서 가장 기대를 많이 하던 노래자랑!

승원님의 '인생은 미완성'을 시작으로 각자 노래와 춤 실력을 뽐냈어요.  
노래 솜씨를 뽐낸 후 떨리는 시상... 두구두구두구~

3등은 '바람아 멈추어아오'를 부른 현규님! 2등은 '찔레꽃'을 부른 성우님!  
대망의 1등은 '마이클 잭슨 춤'을 춘 인태님! 인태님이 춤은 중간에 멋들어진  
발차기와 하늘을 찌르는 손동작을  
할 때마다 주위에서 박수가 쏟아졌죠.

분위기 좋은 캠핑장에서 즐거운 노래와 맛있는 간식이 함께하는  
행복한 캠프였습니다.



## 캠핑의 꽃은 맛난 "먹거리"죠!

태풍소식으로 날짜를 바꿔 첫번째팀에서 마지막팀으로 바뀐  
우리는 성촌의집 캠핑장의 마지막을 먹거리로 장식했어요.

캠핑장에서 외식을 즐기자는 마음이었죠.

옥수수와 감자도 찌고, 숯불에 닭꼬치도 굽고,  
소풍 온 기분으로 김밥도 싸고, 먹거리로 가득하고  
함께한 사람들에게 만든 음식을 나누며 즐겼어요.  
풍성한 가을을 맛나게 맞이한 캠프였습니다.



## 언택트시대의 마을공동체사업



# 장애인의 자립을 돋는 마을 “동암누리”



장애인이 동네 이웃으로 살아간다고 했을 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한 경험들도 중요하지만 그 동네에서 살고 있는 이웃주민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관계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네에서 서로 마주치면 웃으며 인사를 주고 받을 수 있는 관계

길을 잊어버린 이웃을 발견하면 길을 안내해줄 수 있는 관계

같은 동네 주민으로 우리 마을을 위해 함께 활동하는 관계

지극히 평범한 이웃주민들 간 관계입니다.



성촌의집에서는 그런 이웃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하는 장애인의 자립을 돋는 마을 “동암누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답니다. 심정2동행정복지센터와 파트너십을 맺고 성촌의집 장애인과 심정2동 주민들이 함께 우리 마을을 위해 동암누리 공동체로 활동합니다.

### 마을공감

마을공감사업은 성촌의집 장애인과 심정2동 주민들이 함께 하는 사업입니다. 공동체활동에 필요한 생각과 장애인에 대한 생각의 변화를 만드는 인문학교실을 운영하고 이후 동암누리 마을공동체로 함께 활동합니다. 현재 심정2동주민들과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만나기는 어렵지만 비대면 화상회의를 통해 정기적으로 인문학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암누리 마을공동체가 발족하면 이때부터 우리 심정2동의 좋은 변화를 위해 함께 회의도 하고 마을환경도 바꿔나갈 예정이랍니다.



가치 있는 삶을 만들어가는 행복공동체



## 공감지기

공감지기사업은 십정2동 소상공인들과 함께 하는 사업입니다. 턱이 있는 마트, 미용실, 은행, 음식점 등 지역편의시설에 경사로를 보급하여 장애인뿐만 아니라 누구나 환경적인 제약을 받지 않고 편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를 보급합니다.

그리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성촌의집 발달장애인들과 지역 어르신, 외국인 등이 십정2동 편의시설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다함께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의사소통판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성촌의집 주변 마트, 미용실, 은행 등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어서 열심히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제작하고 있답니다. 완성이 되면 지역편의시설들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속에서 얼굴을 맞대지 않고 관계를 만들어가야하는 언택트시대이지만 십정2동의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 공감하고 함께 참여하고 있답니다. 앞으로 성촌의집 장애인과 십정2동 주민들이 동암누리 마을공동체 활동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장애인의 자립을 돋는마을 동암누리' 사업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합니다.

# 별마을 메모리즈

## 다함께 돌자~ 동네 한바퀴



건강지킴이의 부제 다함께 돌자~ 동네 한바퀴입니다~  
코로나19 2.5단계 시행전인 8월, 마스크로 꽁꽁 싸매고 성촌의집 건물 세바퀴를 돌아봤습니다.

## 열무김치, 오이소박이 담그기



열무김치와 오이소박이를 만들어봤어요  
어쩜 이렇게 맛있을 수가~~

## 이용자 건강검진과 안과검진



올해도 건강검진과 안과검진으로 이용자분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했습니다.

## 성촌 헬스장



새로 오신 물리치료사님의 인기는 헬스장이 붐비는 것으로 증명되었다죠?  
그러나 우리는 거리두기를 해야하니까 5명 이내로 예약을 하고 운동을 할 수 있어요.

## 댄싱퀸 오브 성촌



비대면으로 진행한 댄싱퀸 오브 성촌!  
드디어 첫 개강날입니다. 강사님은 빔 안에서 열심히 댄스 스텝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내 다리는 뒤죽박죽으로 엉켜버렸어요~~

## 창희님의 이용종료



창희님이 이용종료를 하시고 어머님이 계시는 원가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성촌의집은 창희님과 원가족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 행복한 동행 그 이상의 아름다움.

2020.06.~2020.08.

peace

교촌경인유통

김인숙

대한적십자사  
인천광역시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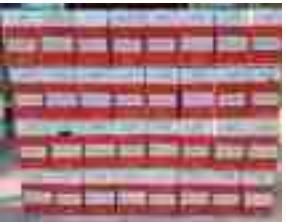
쌀, 물티슈, 손세정제



교촌리얼치킨버거, 치킨



부식과 간식 등



닭가슴살, 생필품

안스베이커리(구월점)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전정호

정상용



빵



생수



치킨



치킨

진홍석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희망집짓기운동본부

(주)유한엔씨아이



의자, 탁자



코로나19대응물품



쌀, 돼지고기, 김치 등



마스크

# 한국희망집짓기운동본부를 소개합니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면서 성촌의집의 모든 자원봉사의 활동이 중단되었습니다.

외부방문자들의 출입이 제한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팀이 있습니다.

한국희망집짓기운동본부 산하의 봉사팀들...

이용자들과 활동을 하고, 점심식사준비를 해주시기도 하시는 팀들이었는데..

성촌의집에 들어올 수 없으니.. 어떻게 하죠... 서로 고민하던 중..

도시락을 만들어 드려도 괜찮을까요..

들어갈 수 없다면, 우리가 만들어다 드릴께요..

우리에게 매달 외식처럼 다양한 도시락을 만들어 2번씩 지원해 주십니다.

동그라미봉사단, 한우리봉사단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용자들의 내부생활 하는 시간들이 길어지다 보니 쌀, 김치, 부족하였었는데. 지속적으로 연결을 해주시니 더한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희망집짓기운동본부의 김문규본부장님 및 모든 임원진들 그리고 언택트 시대에도 봉사의 끈을 놓지 않고 실천해 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그라미  
봉사단



한우리  
봉사단



## 후원자 명단 (2020.06.01.-2020.08.31.)

### + 신규후원자

개인 : 김일동, 진홍석

단체 : 앤스베이커리(구월점), (주)유한엔씨아이

### + 지정후원금

개인 : 이은주(성촌의집), 임미정

단체 : 인천사회복지협의회, 인천공동모금회, 인천공동모금회여름나기

해피빈(아이디) : 강민형, 강성호, 공주님, 기쁜노래, 김혜리, 길라잡이,  
나아나, 노대용, 닉간, 다솜, 뜻뜻한복지, 로유, 박명숙,  
배수경, 성촌지기, 송희연, 숨은천사, 아이리스, 에이취,  
연우, 유노민노, 이사미, 이은주(성촌의집), 현우아사랑해,  
혜민공주, 항동베어스, 체르, by an, cchcake001, ch86,  
CoffeeHolic, dd, hamas, kkz, kkzztt, leejihye1029,  
moo, mylove, OnlyWay, tnwksfl

### + 비자정후원금

CMS : 김기순, 김은미, 김인수, 박경진, 손대원, 윤재경, 이구형, 이상진, 이은주  
(부평우체국), 정금자, 조경진, 조근태, 조성숙, 최경자

개인 : 김숙정, 김용애, 김현보, 박남호, 박왕진, 박점숙, 백설희, 백준희,  
서영재, 서하나, 신진자, 신자남, 이수복, 이은주(성촌의집), 이호형,  
이향란, 전정호, 정대상, 정민영, 정상용

단체 : 건강길약국, 교촌에프앤비(주), 동암교회, 라성약국, 인천중앙감리교회,  
인천농산물주식회사

### + 후원물품

마스크(나노마스크 · 엔탈마스크) : (주)유한엔씨아이

코로나19대응물품(체온계, KF4마스크, 손소독제 등) : peace,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주부식지원(고기, 김치, 도시락, 부식 등) : 대한적십자사인천광역시지부,

동그라미봉사단, 태운실, 한국희망집짓기운동본부, 한우리봉사단, peace

간식지원(치킨, 햄버거, 빵, 과일 등) : 교촌경인유통, 김인숙, 김일동,

앤스베이커리(구월점), 성낙경, 전정호, 정상용

기타물품지원(치류, 의자, 일상용품, 생수 등) : 송희연, 이미복, 장 순, 장연희,

진홍석, 인천사회복지협의회, 대한적십자사인천광역시지부

## 자원봉사자 명단 (2020.06.01.-2020.08.31.)

### 단체 봉사자

〈동그라미 봉사단〉 - 도시락 배달

오현주회장, 나태현총무, 김경숙, 김기복, 김인선, 김현미, 민영희, 방혜원,  
서금란, 신철균, 안영란, 오연실, 이금희, 이정연, 이정혁, 임충휴, 정옥원,  
최계한, 최태문

〈한우리 봉사단〉 - 도시락 배달

김지환회장, 강신자, 김종숙, 김지영, 엄옥자, 오연자, 장배원

##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 (2020.06.01.-08.31.)

	세 입		세 출	
	인건비	기타후생경비	운영비	수용비및수수료
지정후원금	공동모금회 사업비	8,500,000	기타후생경비	6,000
	인사협 기능보강사업비	20,000,000	수용비및수수료	824,670
	시원한여름나기 사업비	3,000,000	공공요금	605,480
	해피빈	375,600	제세공과금	750,000
	지정후원금	70,000	기타운영비	592,000
비자정후원금	CMS후원금	577,240	재산취득비	3,000,000
	단체후원금	2,660,000	시설장비유지비	2,792,000
	개인후원금	4,105,760	사회심리 재활사업비	1,199,800
사업비	기타집수입	22,350	영양관리사업비	413,000
	합계	39,310,950	합계	10,182,950

성촌의집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

행복은 가진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데 있습니다.

## 성촌의집 이용장애인의 가치 있는 삶을 함께 만들어 주세요!

### ♥ CMS(Cash Management Service)

직접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정기 후원신청서 작성 통해  
금융결제원의 관리 하에 정해진 날짜에 후원자님의 계좌  
에서 성촌의집 계좌로 약정금액이 이체되는 제도

#### 후원신청방법

후원신청서 작성, 전화, 메일,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성함, 주소, 주민번호, 계좌번호, 후원금액, 출금날짜)

### ♥ 자동이체후원

후원계좌로 직접 입금 (예금주:성촌의집)

신용협동조합 131-009-995822

국민은행 660401-01-641623

중소기업은행 108-093168-04-011

농협은행 301-0072-5929-41

우체국 100115-01-000694

새마을금고 9002-1870-3578-7

### ♥ 모금함

성촌의집 모금함에 후원금을 모금

#### 모금함 설치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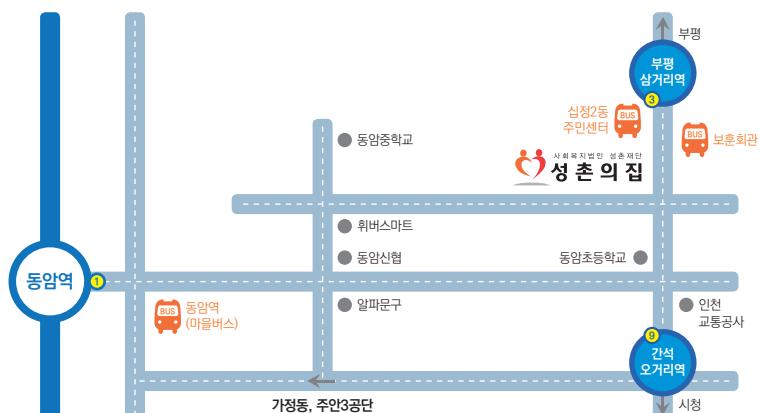
- 모금함을 놓을 작은 공간 마련
- 손님들에게 성촌모금함을 홍보
- 모금함이 다 모이면 성촌의집으로 연락

### ♥ 물품 후원

일상용품 (청소용품, 마스크, 여성용품)  
가전제품(컴퓨터, 건조기)  
사무용품(빔 프로젝터, 스크린)  
보조기기(리클라이너 침대 등)

### ♥ 결연후원

성촌의집 이용장애인과 1:1 후원으로  
관계형성함으로써 결연이용자의 자립지원금,  
일상용품 구입비, 의료비 등으로 사용



#### BUS/버스

마을버스 : 531, 532A, 532B, 533, 535, 536, 537, 538, 539,  
564-2(동암역 하차)  
시내버스 : 2, 111-2, 34, 45번(심정2동주민센터, 보훈회관 하차)

#### SUBWAY/지하철

국철 : 동암역(1번 출구)  
인천1호선 : 간석오거리역(9번 출구),  
부평삼거리역(3번 출구)

### ♥ 해피빈콩 (클릭으로 참여하기)

후원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온라인에서 무료로 참여하여 기부할 수 있는 방법으로 naver에서 콩배너를 클릭하고  
콩(1개=100원)을 받아 <http://happylog.naver.com/sungchon.do>, 네이버 해피빈에 "성촌의집"으로 검색 후 모금함에 콩 기부



별마을이야기 2020년 세 번째 호 (통권32호)

발행처 | 성촌의집 발행인 | 이은주 편집인 | 이향란 편집위원 | 김기철, 유성우, 장연희

주소 | 인천시 부평구 경인로 701번길 26 (인천시 부평구 심정2동 586-2)

전화 | 032)422-0573 팩스 | 032)433-2572

홈페이지 | [www.sungchon.or.kr](http://www.sungchon.or.kr) 디자인 | 혜성디자인 032)508-2912

※ 후원하신 후원금품은 법인세법 제24조와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